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여름동안 아침묵상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묵상은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름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경건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속됨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중보합니다.

지난 주 (6/25)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1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5:11-17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새 것이 된 사람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7월 9일	7월 16일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들

“두 사람의 사랑, 하나님도 축복하실 것이다”

어느 결혼식에서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주례사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 자유주의 목회자가 동성애자 결혼식에 참석하여 맺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는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인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는 교회 안에마저 동성애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단들은 공식적으로 교단법을 수정하여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그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존중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이라는 말이 만약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까지 무시하며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면 그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의미가 없는 편협하며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인간의 열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포용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들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동성애자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지역에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이며, 저와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는 일은 벌금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인 ‘인권’이라는 말조차 자신들의 방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는 역리는 심판을 향한 지름길일 뿐입니다.